

## 육용오리,새끼오리 가격폭동

지난 3월부터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이 폭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4월 들어서는 이같은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오리업의 안정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오리 산지가격은 지난 2월 수당 평균가격이 4,050원에 형성되었으나 3월들어서는 4천7백50원, 4월들어서는 5천3백원선에 거래되어 130% 오른 가격이다. 그러나 오리 부족현상으로 산지 출하일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생체kg당 산지가격은 2월 평균 1,349원에서 4월초 2,120원으로 157%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산지오리가격은 지난 97년 말 사료가격 폭등으로 새끼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이후 3년만에 처음이며 지난해 9월 산지오리 가격이 폭락세로 돌아선 이후 7개월만에 폭등세로 반전된 가격이다.

이에따라 새끼오리 가격역시 지난 2월 7백원선에서 4월초 1천2백원까지 치솟아 178% 오르는 폭등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산지 오리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이 폭등세를 돌아선 주요인은 지난1월초 내린 폭설로 인해 중부지역 부화장 및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이 많이 무너진데다 질병에

의한 폐사가 늘어나면서 사육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광우병,구제역 등에 의한 위생문제로 요식업소들의 오리고기 소비가 다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산지 오리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의 폭등세 현상은 현재의 사육 여건상 5월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 6월에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PS 생산용 GPS 국내 처음으로 도입

### 충남 천안의 화천부화장

국내 처음으로 PS 종오리 생산을 위한 GPS 종오리가 도입되어 국내 종오리 개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충남 천안시 동면에 소재한 화천부화장(대표 이현주)은 영국의 오리전문 육종회사인 체리벨리사로부터 수퍼엠 3 PS 생산을 위한 GPS 2천 5백수를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GPS는 PS 종오리 생산용 4개라인으로 종전 체리벨리사의 패킹종오리 수퍼엠2에 비해 산란 이용기간이 길어 산란율을 높일 수 있고 PS에서 생산된 육용오리는 증체율 및 사료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알려졌다.

또 체리벨리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종오리 개량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수당 도입가격은 기술지원료를 포함하여 13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화천부화장 이사장은 「국내 오리업이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종오리 개량에 의한 품질좋은 새끼생산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선진 육종회사의 종오리 개량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종오리 개량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9월에는 여기서 생산된 PS가 자체 위탁 종오리 생산농장에 보급될 수 있어 생산성이 뛰어난 육용오리 새끼가 올해안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오리 위생도축장 지원 4월중 사업자 선정 마무리

농림부는 지난 1월 30일까지 각 시도별로 오리위생 작업장 사업자 신청을 받은데 이어 각시도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중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4월중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오리 위생도축이 가능토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농림부는 지난 3월 각시도별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들의 사업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오리위생도축을 위한 각시도별 위생 작업장 설치 및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하여 축산물 유통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시도별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9개소라고 밝히고 이중 경기도 5개소, 충청도 1개소, 경상도 1개, 경북1개소, 인천1개소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가축위생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올 1월에 사업지침 계획을 시달하였으나 이 계획과는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의 사업 지원방향이 장기적인 측면의 오리위생도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는 HACCP개념의 작업장 위생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본회는 6개항으로된 대정부 건의문을 3월 18일 제출한바 있다.

## 배합사료 가격 또 인상움직임

환율인상에 따라 지난 2월 인상된 배합사료 가격이 환율이 큰폭으로 인상되면서 배합사료업체 내부에서 또다시 인상론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 배합사료업체에 관계자에 따르면 지

난 2월 배합사료 가격 인상당시 환율은 1천 2백50원선 이었으나 사료가격은 기준환율 1,100원으로하여 평균 7-8% 인상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거래환율이 1천3백50원선으로 오르면서 인상당시 기준환율 1천2백50원에 근거하더라도 9%의 배합사료 인상이 발생되고 있다는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4월 중순이후 약 9%선의 인상방침이 농가에 통보될 것으로 보이나 농협이 인상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인상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리고기 수입량 또 다시 급등

국내 산지오리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리고기 수입량 역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가격에 비해 유통되는 수입오리가격 역시 크게 오른 가격에서 유통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량은 태국에서 7건에 126톤이 들어온데 반하여 중국산은 29건에 38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144% 폭 증가였으며 국별로는 태국산이 전월에 비해 25% 감소한데 반하여 중국산은 246% 증가하여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액상으로는 80만1천불어치로 기준환율 1천3백50원시 10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g당 수입가격은 중국산이 1.53달러, 태국산이 1.67달러로 중국산이 약간 낮았다.

이를 기준으로 한 수입오리고기의 통관 및 제반경비를 제한 유통가능 가격이 중국산이 kg당 2,581원, 태국산이 kg당 2,81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국내산 오리고기 유통가격과 비교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어서 4월이후 오리고기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육용오리 부화용 오리알 수입 움직임

육용오리용 부화를 위한 오리알이 수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새끼오리 가격이 폭등한 지난 98년도 이후 사육,유통업계 내부에서 새끼오리 가격이 오를 때 마다 나왔던 얘기여서 실제로 수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육용오리 새끼생산을 위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새끼오리 가격이 7백원선이상에서 거래되는 경우 오리알을 수입하여 새끼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중국현지에서 육용오리 부화용알의 개당가격이 40-50원에 불과하고 소독등 검역을 위한 비용이 1백원, 통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1백원등 2백70원선이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50%의 부화율을 감안하더라도 새끼생산비용이 5백원선이라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또 당초 혼자서 오리알 수입을 추진했으나 여러명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방침하에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귀국과 함께 오리알을 들여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리 품종에 대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교잡종이고 50일 사육시 출하체중이 4kg대에 달하는 품종이라고 밝혀 이 오리알이 과연 국내 육용오리 시장에 맞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과 함께 검역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관계자는 어려울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 오리전염성 간염백신 상용화 계속지연

오리전염성간염에 대한 백신 상용화가 계속지연되고 있어 이 질병피해를 줄이려는 사육업계의 가장큰 현안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3월중으로 간염백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던 오리간염백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안전성문제를 계획보완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본회는 지난 4월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오리사육업계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한 회신에서 검역원은 백신생산기술을 전수받은 업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판매허가에 필요한 기술검토 보완자료를 3월 21일자로 우리원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된 백신이 농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검토나 백신검정 등 불가피한 일련의 절차를 마친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에서의 백신사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회신했다.

또 검역원은 귀협회에서 건의한 예방백신의 농가사용이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침언하고 백신이 상용화되기 이전까지 철저한 소독과 차단으로 방역

이 이 질병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홍보하여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오리 니플 급수기 설치 급속확산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깔짚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리사육업계의 관심이 폐수를 한방울도 배출하지 않는 급수 시스템 설치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 많은 오리자동 니플을 공급한 업체에 따르면 전남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은 계열화 사업체를 중심으로 자동급수니플 설치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위탁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설치된 자동급수 니플은 1달 평균 1억원어치가 설치되었다고 말해 이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이 자동급수니플을 얼마나 많이 설치하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들 설치된 주요농가들의 반응은 깔짚을 적게사용하는 측면의 효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인데 반하여 니플 설치에 따른 증체에 있어서는 사육수수에 따른 적정수의 니플을 설치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충남지역의 대규모 부화장 역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화처리 시설을 했으나 정상 작동되지않아 폐수문제가 발생된 이후 영국에서 사용중인 폐수 무배출 급수기를 그대로 자체 제작하여 3개월의 시험사육을 거쳐 전체 위탁중계장 급수시설을 교체중에 있다.

설치된 농장에 따르면 바닥중앙에 설치하는 이 자동급수기는 기존 급수기에서 음수중 오리목을타고 내려오는 음수의 누수를 구조적으로 다시 급수기로 떨어지도록 고안돼 종오리장에 설치한 이후 바닥이 질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폐수발생도 전혀없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 올 도축장 지원사업자 경기도 지역에만 2개업체 선정

정부가 올해 추진키로 한 오리도축장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오리위생도축을 위한 작업장 설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올해 오리위생도축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01년도 소규모 오리도축시설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까지 사업을 신

청한 9개소중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경기도의 한국로스텍, 장안농원등 2개소를 우선 선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소당 용자 지원 한도액은 기존시설 보완은 5억원, 신규설치시 10억원이내 이며 자금의 용도는 도축,가공,오폐수처리 등을 위한 건축 및 시설자금이다. 지원기준은 도축시설은 용자80, 자담20%이며 오폐수처리시설은 용자100%, 가공시설은 용자70,자담30%이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5%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2개업체 대하여 원료조달(농가계약) 및 판매망(가맹점,직판장,체인점등) 확보현황 계약서 사본첨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방안, 위생고시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도지사 의견서 등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업체 및 신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및 본 추진계획서에 의거 2002년도 사업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토록 조치했다.

한편 농림부의 이번 소규모 오리도축시설 사업추진은 오리도축시설 설치시 HACCP기준에 맞는 시설로 설치, 사업대상자는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추진을 원칙으로 전국도축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도축시설 설치를 기본 방향으로 했다고 밝혔다. 2002년까지 오리도축시설 설치계획은 경기 3개소,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전남 각1개소등 총 9개소 중에서 전북,전남은 2000년부터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알 림♣

미르네 농장은 GGT 니플 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공동대처하고자 합니다. 신한 축산에서 설치한 오리 자동급수기 설치농가 중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농가는 미르네 농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